

행복이 문을 두드리는 세상

요즘을 누구나 공화국의 신문과 TV로 자주 접하는 소식이 있다. 새집들이 소식이다.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농촌건설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리상촌들이 앞을 다투어 솟아나는 속에 어제는 평안남도 황해남도, 량강도, 개성시의 여러 농촌마을에서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지더니 최근에는 인민이 주인된 공화국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평양시의 대평지구가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되었다. 새 보금자리에 입사한 주민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은 서로 달라도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안에서 행복이 반겨주고 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서 행복이 기다린다고, 정말 우리 세상은 행복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세상이라고...

인간이 살아가자면 보금자리인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을 드나들자면 문이 있어야 한다. 문과 관련한 우리 겨레의 생활풍속에서 이체를

떠는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문을 복과 편박시켜 보았다는 것이다. 《첫새벽에 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 《들어오는 복도 문 닫는다》는 조선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문으로 복이 들어오고 문으로 복이 나간다고 생각하였다. 고전소설 《홍보전》에서 마당쇠가 늙부에게 마당비를 대문안쪽으로 쓸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대문만 보아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겨레가 이처럼 바라며 복이 깃들기를 소원했지만 집문으로 과연 복이 들어왔던가. 가난과 걱정, 슬픔과 비애만이 찾아들어올뿐 복은 그 어디에도 깃들지 않았었다. 오랜 세월 봉건의 쇠사슬에 얽매어 살아오다니 가난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남존녀비의 세상에서 여성들은

대문밖출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집문안에 갇혀 속절없이 살아야 하였다. 국력이 약해 종당에는 나라마져 송두리채 빼앗겨야 했으니 삼천리가 칠칠암속에 잠겨있던 수만의 세월 얼마나 큰 불행과 재난, 슬픔과 눈물이 맺어 집문을 두드리며 찾아왔던가. 정몽장, 빛문서가 문을 두드리고 사망통지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게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이 강제로 차와 배에 실려 죽음을 고역장으로, 전쟁터로 끌려갔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로 끌려갔다. 그런 불행과 재난속에 살아가다 지 집문안에 들어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던가. 이렇게 홀러운 이 나라 인민의 피눈물은 력사이다. 이 기나긴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신분은 과연

어느분이었던가. 이 나라 인민에게 복된 삶과 새 력사를 펼쳐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었다.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그 감격적인 소식과 함께 이 나라 매 가정의 문으로 비로소 행복이 찾아들기 시작하였으니 장군님 은덕으로 대대로 소작살이로, 머슴살이로 잔병이 곱어온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이 분여되고 그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 문이 좁다하게 제손으로 지은 옥백미를 실어들일 때, 중요산업국유화와 로동법령발포로 공장의 주인된 로동자들의 기쁨이 새 조선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중산경쟁운동으로 이 어찌고 각급 학교에서 배움의 종소리가 울릴 때 인민의 얼굴로 홀라내린것은 눈물이었던가, 행복의 구슬이었던가.

이민위원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지론으로 삼으시고 정력적인 령도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라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천만로그에 의하여 인민의 행복은 더 커지고 그것은 그대로 온 나라 가정들의 문을 열고 들어와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전설로 사람들의 심장속에 새겨졌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 복되고 존엄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다. 철세위인의 인민사랑에 의해 이 땅의 그 어디나 인민이 사는 집집마다에는 행복

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다. 이 나라 매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보시라. 아마도 복받은 자랑거리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자랑중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새 살림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희한한 자랑도 있고 한낱한시에 형과 동생이 국가에서 안겨준 살림집용허가증을 손에 들고 행복의 자기 집문들을 열고 들어섰다는 걱정의 이야기도 있으며 평범한 도로관리공이 공월같은 경주동살림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꿈같은 자랑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려로 양덕은천문화휴양지에 가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왔다는 전쟁로병의 자랑도 감동적이지만 소년단대표로 평양에 올라가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별목공 아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을 울려

주는것인가. 청년 공화국은 인민이 사는 그 어디서나 행복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세상이다. 집집마다에 행복만이 찾아드는 공화국에서는 적대세력들이 불어오는 침략의 불기름도 이 나라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을 빼앗지 못하고 어떤 자연재해도 인민의 복된 삶을 해치지 못한다. 몇해전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면서 간만에 또 한번 가슴이 뭉클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구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셨다. 바로 그 뜨거운 사랑과 하

는것이구나. 몇해전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면서 간만에 또 한번 가슴이 뭉클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구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셨다. 바로 그 뜨거운 사랑과 하

언제해로 불행에 당했던 사람들이 원래 쓰고살던 집보다 더 훌륭한 새집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공화국의 령도에 약성전염병이 침습하였던 최대비상방역기간에도 이 나라 매 가정들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것은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이었다. 이렇듯 이 나라 매 가정의 집집마다에 찾아드는 모든 행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 위대한 인민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온 나라 매가정의 천아버지, 천어머니가 되시어 침략의 무리들이 덤벼들지 못하게 나라의 대문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천만자식들을 사랑의 환풍에 안아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한없이 자애롭고 위대한 어버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이 땅에서는 어디 가나 사회주의 만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매 가정의 집집마다에는 오늘도 매일도 기쁨과 행복만이 깃들 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



할머니의 웃음은 사는 행복한 가정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선배들이 전쟁로병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도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북새권종업원들도 모란봉구역 서흥동 41인민반에 살고있는 최봉금전생로병의 건강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고있다. 뜻깊은 전생질이 하루하루 다가온 듯 매해전 어느날이었다. 그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던 북새권종업원들은 한 전쟁로병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전화의 군복차림으로 승리상알을 떠나지 못하고있는 전쟁로병의 얼굴에는 숙연한 감정이

이곳 종업원들은 머리에 흰머리가 내었어도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던 그날의 모습으로 살려진 전생세대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을 지켜 피흘려 싸운 전쟁로병을 잘 돌봐주는것은 우리 새세대들의 미망한 의무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최봉금전생로병과 인연을 맺은 이들의 발걸음은 로병의 가정으로 이어졌다. 나라에서 후세도록 길이 찬양받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으로, 참다운 스승으로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는 전쟁로병들을 위해 바쳐가는 이들의 진정성을 느꼈다. 그들은 명절과 휴식날은 물론 전쟁로병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안겨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저저마다 전쟁로병 할머니가 로병의 장례식을 치르며 축하의 노래도 불러주고 성의껏 마련한 기념품도 안겨주는 모습을 보며 로병도 그의 가족들도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마다 북새권종업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전화의 로병들이 있어 오늘이 우리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로병들이 전화의 나날

에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계속 빛내어나가도록 힘이 되어주고 보탬이 되어주려는 이들의 마음은 만복을 몰랐다. 해마다 뜻깊은 전생절이 오면 조국해방전쟁참전지들과 전지공로자들을 평양에 초대하도록 하고 그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접할 때마다 그들은 전생세대를 위한 자자들의 마음이 어찌지 모자라진것만 같았다. 더우기 고령의 나이이지만 언제나 락적으로 생활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는 전쟁로병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전생세대의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한생을 애국헌신으로 빛내어갈 마음을 가다듬곤 하였다. 얼마전에도 이곳 종업원들은 많은 식료품과 보약을 마련해가지고 또다시 전쟁로병의 집을 찾았다. 성의어린 갖가지 보약들도 그리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결전의 길로》, 《샘물에서》와 같은 전시가요는 전쟁로병 할머니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 북새권종업원들이 전쟁로병의 집을 찾은지도 여러해가 되었다. 이 나날 여러 종업원들은 최봉금전생로병과 한식술이 되었다. 한식술이 된 이곳 종업원들, 그들의 가슴속에는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려는 아름다운 지향이 간직되어있다. 오늘도 이곳 종업원들은 전쟁로병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피려는것을 용당한 도로로, 본분으로 간직하고 그 길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고있다. 본사기자 흥 범 식

나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원팀정판에도 좋은 해바라기를 연구하는 식물학연구사이다. 직업적인연으로 하여 나는 남달리 해바라기를 사랑하며 그와 관련된것이라면 무엇이든 눈여겨보곤 한다. 며칠전 출근길에서 버스 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나의 눈길은 신문대에 비치된 《로동신문》의 글줄에서 오래동안 떠날줄 몰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리고 회의에서 새로운 육아정책의 집행실태를 상세히 분석총화하고 첫째제품 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추진할때 대한 문제, 후대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결정되었다는 소식이였다. 국가적인 중요회의때마다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가 취해지곤 하는것이 공화국의 감동깊은 현실이다. 그 보도를 읽어내려가느라

니 문득 집안의 가보로 소중한 간직된 딸의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증이 떠올랐다. 대표증에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들이 새겨져있다. 그 대표증을 가슴에 꼭 안고 딸에는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소년단대표들이 태양을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들중

이 계신다. 힘겨울수록 후대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야방시, 발전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수님께서도 심혈을 바쳐가시는 그이는 바로 아이들의 위대한 해님, 이 계신다. 힘겨울수록 후대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야방시, 발전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수님께서도 심혈을 바쳐가시는 그이는 바로 아이들의 위대한 해님,

있었다. 력사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으로 간주한 위인들의 일화가 적지 않게 전해져온다. 하지만 한몸이 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일념으로 후대들에게 크나큰

한다. 그런데도 《아동센터》들은 인력난, 자금난을 구실로 운영은 명색뿐이고 심지어 피해자가 찾아가도 인원과 자리가 없다며 치료와 지원을 아예 거부하고있다. 허기에 남조선의 각계는 《완전히 망조가 든 세상》, 《미미에 사망선고를 내린 암울한 땅》, 《당국의 정책작성에서 아이들은 아예 없다》며 개탄하고있다고 한다. 해당 사회의 진면모와 전도를 보려거든 아이들을 보라고 했다. 한없이 따사로운 후대사랑의 정치아래 아이들이 온갖 복을 받아안으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동아들로 자라는 공화국과 어린이들이 싸늘한 태도와 무관심속에 시들어가고 온갖 비인간적인 악행과 폭력범죄에 짓눌려다 못해 복지기관이라는 《아동센터》에서까지 버림받는 남조선사회. 정녕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천국과 지옥을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는것이다. 그렇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조선로동당의 제일중대사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맘을 흘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왕국, 미래사랑의 락원들이 내운다 하면서 분주함을 피했다. 하지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번이나 지나도록 위정자들의 허울뿐인 아동정책과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이 범람하는 남조선사회에서 아동학대, 아동폭력, 아동친화적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만 했다. 지난해 6월에만 도 남조선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무려 5만여건이나 일어났다고

